

고1  
공통국어1  
비상(박영민)

2027 고1 공통국어1 비상(박영민) | 2(1) 음운의 변동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주로 여러 예시나 짧은 글을 <보기>로 제시하고, 해당 예시에서 일어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ㅎ’ 탈락, 거센소리되기 등의 변동을 분석하는 유형이 출제됩니다. 또한, 주어진 단어와 동일한 음운 변동을 찾는 문제나 <보기>에서 설명한 음절의 끝소리 제약, 자음군 단순화 규칙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도 평가합니다. 나아가 유음화나 비음화가 조음 방법이나 조음 위치 중 무엇을 바꾸는지 등 음운 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지식을 확인하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1. <보기>의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옳지[올치], 좁히다[조피다]
- ㉡ 꿀어[끄러], 쌓이다[싸이다]
- ㉢ 숲도[습또], 옷고름[올꼬름]
- ㉣ 읽지[익찌], 훑거나[훑꺼나]
- ㉤ 뒹는[당는], 부엌문[부영문]

- ① ㉠: ‘ㅎ’과 다른 음운이 만나 한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 ‘ㅎ’이 뒷말의 첫소리로 연음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 받침에 쓰인 자음이 그대로 발음되지 못하고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 받침에 쓰인 두 자음 중 하나가 뒤의 자음과 합쳐져 된소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 겹모양[건모양]처럼 앞말의 받침이 뒷말의 첫소리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이 일어난다.

2. 아래 <보기>에서 밑줄 친 단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의 예를 제시한 것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바다 숲’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다 숲’은 육지의 숲과 같이 바다 속에서 해조류와 해초류가 무성하게 자란 곳을 말합니다. 많은 어류들은 봄철에 알을 낳는 산란기를 맞이하는데요. 이때 어류들은 바다 숲에서 알을 낳고, 다시 깊은 바다로 돌아갑니다. 알에서 깨어난 어린 물고기는 바다 숲에서 성장합니다. 최근 바닷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어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예
①	같이	미달이[미다지]
②	말합니다	맨입[맨닙]
③	산란기	전라도[절라도]
④	낳고	만형[마형]
⑤	흡수	껴안다[껴안따]

3. 다음 진술 중 틀린 것을 두 개 고르면?

- ① 유음화는 조음방법을 같게 하는 음운 변동이다.
- ② 비음화는 조음위치를 같게 하는 음운 변동이다.
- ③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대립이 있다.
- ④ ‘눈싸움을 한다’는 비분절 음운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사례이다.
- 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는다.

4. <보기>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유형

<보기>

㉠ 많군  
㉡ 닳은  
㉢ 끓는  
㉣ 닭하고  
㉤ 밝히면

- ① ㅎ탈락이 일어나는 것은 ㉡뿐입니다.
- ② 유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뿐입니다.
- ③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는 것은 ㉢뿐입니다.
- ④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것은 ㉠, ㉡, ㉤뿐입니다.
- ⑤ 음운 변동이 2가지 이상 일어나는 것은 ㉢, ㉣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자음과 모음 체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며,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 분류나 혀의 높이, 입술 모양에 따른 모음의 이해를 평가합니다. 또한, 문장이나 목록에서 제시된 단어들을 보고 거센소리되기, 탈락, 첨가, 유음화 등 특정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사례를 정확히 찾아내는 유형이 출제됩니다. 상당수 문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또는 탈락과 교체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복합적인 음운 변동 과정을 분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구분, 한자어의 발음 규칙, 구개음화의 조건, 변동 결과의 표기 반영 여부 등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을 묻는 문제도 연습해 두어야 합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 친 부분의 음운 변동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6.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의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에는 음절의 종성에 대한 제약과 관련한 음운 변동이 여럿 있다. 우선 국어에는 ㉠종성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을 둘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종성에 둘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1개라는 제약이 있다. 종성 자리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가 탈락한다.

<보기1>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고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경우를 ‘최소 대립’이라 하고 최소 대립을 이루는 단어의 짝을 ‘최소 대립쌍’이라 한다.

- ① ‘이 밤의 끝을 [끄틀] 잡고’에서는 ㉠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② ‘매우 닭달[닥딸] 하였다’에서는 ㉡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일어난다.
- ③ ‘감기가 낫는[난는] 것 같더니’에서는 ㉡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일어난다.
- ④ ‘왜 그 착한 사람 속을 굶니[굶니]’에서는 ㉡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일어난다.
- ⑤ ‘날씨가 맑게[말게]’에서는 ㉠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일어난다.

<보기2>

[학습 과제] 앞서 사람이 말한 단어와 최소 대립쌍인 단어를 말해 보자.

물	불	㉠	벌
학생1	학생2	학생3	학생4

- ① 달
- ② 발
- ③ 말
- ④ 봄
- ⑤ 북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음운은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먹’은 단독으로 발음될 때 [먹]으로 발음되지만, ‘먹물’은 ‘먹’의 ‘ㄱ’이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에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어 [멍물]로 발음된다. 이처럼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교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 새로운 하나의 음운이 되는 ㉠축약, 두 음운 중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 등으로 분류된다. 음운 변동 현상은 주로 발음을 편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음운 변동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하기도 하지만 음운 변동의 결과를 모두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7. ㉠이 나타나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동구 ㉠밭 과수원 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 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돌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긋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 길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8. <보기>에서 ㉠이 나타나는 단어의 개수로 적절한 것은?

<보기>

깊고 넓은 바다 위를 누비는 화물선에서 유독 내 시선을 붙잡는 것은 겹겹으로 쌓인 컨테이너들이다. 수많은 수출 제품을 싣고 제 주인을 찾아 각지를 다니다가 또다시 수입 제품들을 모아서 화물선으로 돌아오는 컨테이너들. 문득 나도 그들처럼 해외를 유랑하듯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9. 밑줄 친 단어 중,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경영학  
 ② 꽃잎이 하롱하롱 떨어지는 봄날  
 ③ 날씨가 별안간 추워져 꺼낸 솜이불  
 ④ 눈요기라도 할 겸 찾아 나선 재래시장  
 ⑤ 콩을 심으면서도 이게 다 헛일이지 싶었던 밭

10. 밑줄 친 단어 중, 음운 변동의 결과로 유음이 나타난 것은?

- ① 내가 살던 곳은 한라산 중턱이야.  
 ② 오늘 언니의 상견례 장소가 어디야?  
 ③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는 폐쇄되었어.  
 ④ 오늘 밤에 담력을 시험해 보기로 하자.  
 ⑤ 게임에서 이기려면 협력만이 살 길이야.

11. <보기>의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말의 음운 변동에는 서로 다른 음운이 만났을 때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변동이 있는데, 축약과 탈락이 바로 그러하다. 축약이나 탈락으로 인한 음운 개수의 변화는 음절의 개수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반드시 축약이나 탈락이 일어나야만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어 내에서 ㉠교체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지만, 음절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다.

- ① 되- + -었다 = 됐다[뉘따]
- ② 피- + -었다 = 땀다[뵤따]
- ③ 서- + -어서 = 서서[서서]
- ④ 잡- + -히고 = 잡히고[자피고]
- ⑤ 크- + -어서 = 커서[커서]

12. <보기>의 ㉡~㉦ 중 ㉢과 ㉣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보기>

우리말의 음운 변동에는 서로 다른 음운이 만났을 때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의 소릿값을 따라 변하는 현상이 있다. 이를 동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음운의 동화에는 ㉠조음 방법을 같거나 비슷하게 바꾸는 경우와, ㉡조음 위치를 같거나 비슷하게 바꾸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예시들 중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찾아보자.

㉡ 덧쌓는[뉘싼는]    ㉢ 속력도[송녁또]  
 ㉣ 읽었고[일건꼬]    ㉣ 걸웃만[거돈만]  
 ㉤ 맞붙임[만뿌침]    ㉤ 닦는데[당는데]

	㉠	㉡
①	3개	2개
②	4개	1개
③	4개	2개
④	5개	1개
⑤	5개	2개

1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기>

우리말의 단어를 발음할 때, 같은 음운 환경으로 보이더라도 서로 다른 음운 변동을 겪는 예를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뒤에 오는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일어나기도 한다.

(1) 새로 산 옷이[오시] 마음에 든다  
 (2) 지갑을 옷 위[오위]에 뒀는데 사라졌다.  
 (3) 딸+~님[따님] / 달+~님[달림]

(1)과 (2)는 모두 앞말 받침이 ‘ㅅ’이면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발음되는데, (1)의 경우 뒤에 온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연음 현상만 일어날 뿐 별도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2)에서는 뒤에 온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이므로 ( ㉠ )을/를 겪어 받침의 소리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의 경우 서로 다른 두 단어가 똑같이 ‘㉡+㉢’의 환경 이지만 전자의 경우 ( ㉣ )이/가 일어나고 있으며, 후자는 ( ㉣ )이/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형태소의 종류와 상관없이 해당 단어가 형성되던 시기에 우세했던 음운 변동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예시가 된다.

	㉠	㉡	㉢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탈락	교체
②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탈락
③	음절의 끝소리 규칙	탈락	첨가
④	자음군단순화	교체	탈락
⑤	자음군단순화	첨가	교체

【14~15】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음운 변동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축약,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첨가가 있다. 음운 변동은 하나만 일어나기도 하고, 둘 이상 음운 변동이 함께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변화하기도 한다.

14. <보기>를 읽고 아래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료>

- 한여름에는 길을 두 번이나 건너서 학교까지 걷기가 너무 힘들다.
- 그 집 만며느리같이 과일을 사면서 값을 깎고 또 깎아대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 색연필을 사용하여 꽃잎을 색칠한 그림이 너무 예쁘다.

[학습활동]

- 위 자료의 밑줄 친 단어를 탐구하여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인한 음운의 개수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 ‘한여름[한녀름]’과 ‘걷기[걷끼]’는 첨가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 ‘건너서[건너서]’와 ‘옳지[올치]’는 변동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 ‘꽃잎[꼰닙]’은 변동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늘고, ‘못한[모탄]’은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 ‘만며느리[만며느리]’와 ‘색연필[생년필]’은 첨가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 ‘깎고[깍꼬]’는 탈락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15. <보기>의 ㉠‘교체’와 ㉡‘축약’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 ① 감옥에 갇히다[가치다].  
 ② 숨이불[숨니불]이 따듯하다.  
 ③ 정원에 핀 꽃이 노랗다[노라타].  
 ④ 생일날 예쁜 꽃다발[꼰따발]을 받았다.  
 ⑤ 올해는 꼭 해돋이[해도지]를 보러 가야겠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④

㉔의 ‘읽지[익찌]’, ‘흙거나[흙꺼나]’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오는 자음이 된소리로 바뀌는 교체(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두 음운이 합쳐지는 ‘축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① ㉑의 ‘울지[울치]’, ‘좁히다[조피다]’는 ‘ㅎ’과 다른 자음이 만나 거센소리(ㅋ, ㅌ, ㅍ, ㅊ)로 합쳐지는 축약(거센소리되기) 현상이다.

② ㉒의 ‘끓어[꼬러]’, ‘쌍이다[싸이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ㅎ’이 발음되지 않고 탈락하는 현상이다.

③ ㉓의 ‘숲도[숭도]’, ‘웃고름[올꼬름]’은 받침 소리가 7개 자음(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다.

⑤ ㉕의 ‘닭는[당는]’, ‘부엌문[부영문]’, ‘겉모양[건모양]’은 앞말의 받침이 뒷말의 비음(ㄴ, ㄹ) 영향을 받아 비음(ㅇ)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다.

### 2. 정답 ②

<보기>의 ‘말합니다’는 [말함니다]로 발음되며, 이는 파열음 ‘ㅂ’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ㅁ’으로 변하는 ‘비음화’ 현상이다. 그러나 선지의 ‘맨입[맨닙]’은 없던 ‘ㄴ’ 소리가 덧나는 ‘ㄴ 첨가’ 현상이므로, 두 단어의 음운 변동 현상은 서로 다르다.

① ‘같이[가치]’와 ‘미닫이[미다지]’는 모두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예이다.

③ ‘산란기[살란기]’와 ‘전라도[절라도]’는 모두 ‘ㄴ’이 ‘ㄹ’ 앞뒤에서 ‘ㄹ’로 바뀌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예이다.

④ ‘날고[나코]’와 ‘만형[마형]’은 모두 ‘ㅎ’과 다른 자음이 만나 거센소리로 줄어드는 거센소리되기(축약) 현상이 일어나는 예이다.

⑤ ‘흡수[흡쑤]’와 ‘껴안다[껴안따]’는 모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예이다.

### 3. 정답 ②, ⑤

② 비음화는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만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따라서 조음 위치를 같게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연음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적용된다. 따라서 실질 형태소 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유음화는 ‘ㄴ’이 유음 ‘ㄹ’로 바뀌어 조음 방법을 같게 하는 동화 현상이다.

③ 국어의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삼중 체계를 이룬다.

④ ‘눈’과 ‘눈:’처럼 소리의 길이(장단)라는 비분절 음운에 의해 의미가 구별될 수 있다.

### 4. 정답 ③

자음군단순화는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으로, ㉔ ‘끓는[끓는→끓른]’뿐만 아니라 ㉔ ‘닭하고[닥하고→다카고]’ 등에서도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난다.

① ‘ㅎ’ 탈락은 ㉒ ‘닭은[다른]’에서 모음 어미 앞에서 ‘ㅎ’이 탈락하며 나타난다. ㉑, ㉔, ㉕은 ‘ㅎ’이 축약되는 현상이며, ㉓은 ㄴ 앞에서 ‘ㄹ’과 ‘ㄹ’의 ‘ㅎ’을 발음하지 않는 자음군단순화 현상이다.

② 유음화는 ㉔ ‘끓는[끓는→끓른]’에서 ‘ㄴ’이 ‘ㄹ’로 변하며 나타난다.

④ 거센소리되기는 ㉑ ‘많군[만군]’, ㉔ ‘닭하고[다카고]’, ㉕ ‘밝히면[발키면]’에서 ‘ㅎ’과 예사소리가 만나 축약되며 일어난다.

⑤ ㉔ ‘끓는’은 자음군단순화와 유음화, ㉔ ‘닭하고’는 자음군단순화와 거센소리되기 등 복합적인 변동이 고려될 수 있어 2가지 이상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 5. 정답 ④

‘굽니[궁니]’는 먼저 겹받침 ‘ㄹ’ 중에서 ‘ㄹ’이 탈락하고 ‘ㄱ’만 남는 자음군단순화(㉒)가 일어난 후([꺽니]),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ㄱ’이 ‘ㅇ’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㉒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일어났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① ‘끓을[꼬를]’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와 결합하여 연음된 것이므로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 ② ‘닭달[닥딸]’의 ‘ㄱ’이 ‘ㄴ’으로 바뀌는 것은 탈락(㉠)이 아니라 교체(㉡)이다.
- ③ ‘낮는[난는]’은 ‘ㅅ’이 ‘ㄷ’으로 교체(㉡)된 후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탈락)과는 관련이 없다.
- ⑤ ‘말게[말께]’는 겹받침 ‘ㄹ’ 중 ‘ㄱ’이 탈락하는 자음군단순화(㉠)만 일어났으며, ‘ㄹ’은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이므로 ㉡(교체)은 일어나지 않았다.

6. **정답** ②

최소 대립쌍은 오직 한 가지 소리의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한다. ‘불’과 ‘밭’은 초성(ㅂ)과 종성(ㄹ)이 같고 중성(ㅍ, ㅍ)만 달라 최소 대립쌍을 이룬다. 또한 ‘밭’과 ‘벌’도 초성(ㅂ)과 종성(ㄹ)이 같고 중성(ㅍ, ㅍ)만 달라 최소 대립쌍이 된다. 따라서 ㉡에 들어갈 단어는 ‘밭’이다.

- ① ‘달’은 ‘불’과 비교할 때 초성과 중성이 모두 달라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 ③ ‘말’은 ‘불’과 비교할 때 초성과 중성이 모두 달라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 ④ ‘봄’은 ‘불’과 비교할 때 중성과 종성이 모두 달라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 ⑤ ‘복’은 ‘벌’과 비교할 때 중성과 종성이 모두 달라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7. **정답** ③

㉠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현상이다. ㉡ ‘향긋한’은 [향그탄]으로 발음되는데, 받침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뀐 뒤 뒤의 ‘ㅎ’과 합쳐져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 ‘하얗게’는 [하야케]로 발음되는데, ‘ㅎ’과 ‘ㄱ’이 합쳐져 [ㅋ]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 ①, ②, ④, ⑤ a ‘뽕’은 [박]으로 발음되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만 일어난다. b ‘이파리’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옛날’은 [옌날]로 발음되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ㅅ’이 ‘ㄷ’으로 바뀐 뒤 ‘ㄷ’이 ‘ㄴ’을 만나 ‘ㄴ’으로 변하는 비음화(교체)가 일어난다.

8. **정답** ③

<보기>에서 ㉠(탈락)이 일어나는 단어는 총 3개이다. ‘싸인’은 [싸인]으로 발음되며, 모음 앞에서 ‘ㅎ’이 탈락했다. ‘수많은’은 [수마는]으로 발음되며, 모음 앞에서 ‘ㅎ’이 탈락했다. ‘모아서’는 ‘모으- + -아서’가 결합할 때 ‘ㅡ’가 탈락하여 [모아서]가 되었다.

①, ②, ④, ⑤ ㉠이 나타난 단어의 개수로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①

‘경영학’은 [경영학]으로 발음되며, 음운의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②, ③, ④, ⑤ ‘꽃잎[꼰닙]’, ‘숨이불[숨니불]’, ‘눈요기[눈뇨기]’, ‘헛일[헌닐]’은 모두 앞말의 받침 뒤에 ‘ㄴ’ 소리가 덧나는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예이다.

10. **정답** ①

유음화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현상이다.

- ① ‘할라산’은 [할라산]으로 발음되며, ‘ㄴ’이 뒤의 ‘ㄹ’을 만나 ‘ㄹ’로 바뀌었으므로 유음화에 해당한다.
- ② ‘상견례[상견례]’, ③ ‘등산로[등산노]’, ④ ‘담력[담:녁]’, ⑤ ‘협력[협녁]’은 모두 ‘ㄹ’이 비음(ㄴ, ㄹ, ㅇ)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예이다.

11. **정답** ②

‘피- + -었다’가 결합하여 ‘뻘뻘[뻘따]’가 되는 과정에서 ‘ㅍ’는 ‘ㅍ’와 ‘ㅍ’가 합쳐져 된 것이다. 즉, 단모음 ‘ㅍ’가 반모음 ‘[ㅍj]’로 교체된 후 뒤의 어미와 결합하여 음절 수가 줄어든 현상(3음절→2음절)으로 파악할 수 있다.

- ① ‘뻘뻘[뻘따]’는 ‘되- + -었다’가 결합한 것으로 ‘ㅍ’와 ‘ㅍ’가 합쳐져 ‘뻘’로 축약된 것이다.
- ③ ‘서서[서서]’는 ‘서- + -어서’에서 동일 모음 ‘ㅍ’가 탈락한 것이므로 ‘탈락’이다.
- ④ ‘잡히고[자피고]’는 ‘ㅍ’와 ‘ㅎ’이 합쳐져 ‘ㅍ’이 되는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이다.
- ⑤ ‘커서[커서]’는 ‘크- + -어서’에서 어간의 ‘ㅡ’가 탈락한 것이므로 ‘탈락’이다.

12. 정답 ②

㉠에는 ㉠ ‘덧쌓는[덧싼는]’(비음화), ㉡ ‘속력도[송 녉도]’(비음화), ㉢ ‘겉옷만[거돈만]’(비음화), ㉣ ‘닭는데[당는데]’(비음화)의 총 4개가 해당한다. ㉤ ‘맞붙임[만뿌침]’은 ‘붙임’이 [부침]이 되며 치조음 ‘ㅌ’이 경구개음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므로 조음 위치가 변했으므로 ㉠에 해당하는 것은 총 1개이다. 따라서 ㉠은 4개, ㉡은 1개이다. ㉢ ‘읽었고[일건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으나, 이는 동화로 분류되지 않는다.

①, ③, ④, ⑤ 개수로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 ①

(2) ‘옷 위[오뒤]’는 ‘옷’의 받침 ‘ㅍ’이 실질 형태소 ‘위’ 앞에서 ‘ㄷ’으로 교체된 후 연음되었으므로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다. (3) ‘따님(딸+님)’은 ‘ㄹ’이 탈락했으므로 ㉡은 ‘탈락’이고, ‘달림(달+님)’은 ‘ㄴ’이 ‘ㄹ’로 바뀌었으므로 ㉢은 ‘유음화’(교체)이다.

②, ③, ④, ⑤ ㉠~㉢의 현상을 바르게 짚지 못했다.

14. 정답 ③

㉠: ‘한여름[한녀름]’은 ‘ㄴ’ 첨가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어난 것이 맞다. 하지만 ‘걷기[걷끼]’는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 ‘ㄱ’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교체) 현상이므로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색연필[생년필]’은 ‘ㄴ’ 첨가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어난 것이 맞다. 하지만 ‘만머느리[만며느리]’는 파열음 ‘ㄷ’이 비음 ‘ㄹ’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교체) 현상이므로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깎고[깎꼬]’의 받침 ‘ㄱ’은 하나의 음운이다. ‘ㄱ’이 ‘ㄱ’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이며, 뒤의 ‘ㄱ’이 ‘ㄱ’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도 교체이다. 따라서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음운의 개수도 줄어들지 않았다.

㉣: ‘건너서’는 ‘건너- + -어서’에서 모음 ‘ㅏ’가 탈락하여 음운 개수가 줄었고(탈락), ‘옳지[올치]’는 ‘ㅎ’과 ‘ㅈ’이 합쳐져 ‘ㅊ’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

약)가 일어나 음운 개수가 줄었다.

㉤: ‘꽃잎[꼇닙]’은 ‘ㄴ’ 첨가가 일어나 음운 개수가 늘었고, ‘못한[모탄]’은 ‘ㅁ’이 [ㅂ]으로 변한 뒤 ‘ㄷ’과 ‘ㅎ’이 합쳐지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음운 개수가 줄었다.

15. 정답 ①

‘갸히다’는 먼저 ‘ㄷ’과 ‘ㅎ’이 합쳐져 ‘ㅌ’이 되는 축약(거센소리되기)이 일어나 [가티다]가 된 후, ‘ㅌ’이 ‘ㄴ’ 모음을 만나 ‘ㄷ’으로 바뀌는 교체(구개음화)가 일어나 최종적으로 [가치다]가 된다. 따라서 ㉠ 교체와 ㉡축약이 모두 일어났다.

② ‘숨이불[숨니불]’은 첨가(ㄴ 첨가)만 일어났다.

③ ‘노랑다[노라타]’는 축약(거센소리되기)만 일어났다.

④ ‘꽃다발[꼇따발]’은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만 일어났다.

⑤ ‘해돋이[해도지]’는 교체(구개음화)만 일어났다.